

탈린, 도시 소음 감소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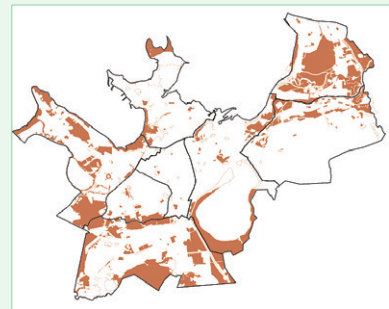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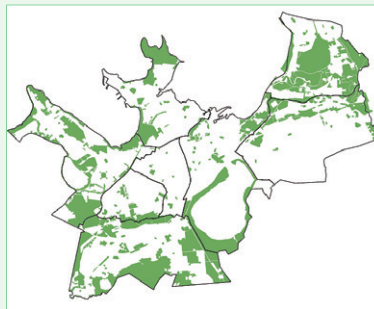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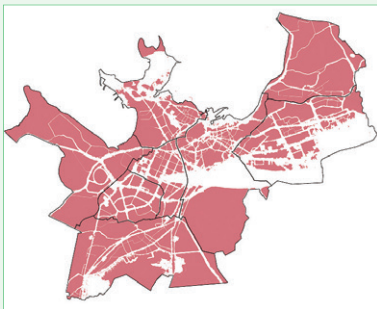
<https://www.tallinn.ee/en/news/tallinn-adopts-noise-reduction-action-plan>
<https://www.tallinn.ee/et/keskkond/myra>

에스토니아 탈린시가 공공장소의 환경 소음, 특히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탈린 시민 10%가 지속적인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과도한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르투대학교(University of Tartu)의 연구를 인용하여 교통 소음이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소음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경우 뇌졸중과 심장질환 발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탈린시는 늘어난 자동차 교통량을 도시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의 소음 지도 데이터에 따르면 시 주요 도로의 소음 수준은 75dB까지 올라가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도시 도로 소음 수준은 53dB이다.

실행 계획은 소음 감소의 주요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는 도로, 트램 노선,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음에 취약한 건축물의 방음, 도시의 녹지 공간을 소음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에도 힘을 예정이다.

시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행로를 더 많이 조성하며 자전거 도로 또한 확장한다. 아울러 15분 도시계획 콘셉트에 따라 필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재편하여, 장거리 자동차 운용의 필요성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소음 장벽 또한 시범 설치에 들어간다. 2022년에 작성된 도시 소음 지도도 업데이트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모델링하는 작업이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탈린시 도시 소음 감소 실행 계획의 구역 구분: 소음구역, 녹지, 저소음구역

출처: Tallinn. (2024). Tallinna keskkonnamüra vähendamise tegevuskava 2025–2029.

<https://www.tallinn.ee/et/keskkond/myra>(검색일: 2025.3.5.)